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운영 현황과 발전과제

서 규 선

한국농업전문학교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Projects of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Gyu Sun Suh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Summary

The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KNAC)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three academic years(six semesters) course by the Presidential Act in July 1995 and opened on March 20, 1997. According to the Act, the students of KNAC are granted free boarding in dormitory, full support of educational expenses, and, after completion, exception in military service and financial support for farming, which is their obligation to do for a double period of the total school year. With these institutional favors KNAC is highly expected to bring up promising young farm managers in Korea. However, actual competitive young farm managers are brought up by the well organized education with emphasis on learning by doing approach.

With the relation to the educ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view and examine present situation of faculty organiz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s, curriculum including field training in home land and overseas countrie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were undesirable aspects such as unbalanced faculty members among the departments, lack of practice farm land and limited budget in field training, which should be improv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KNAC.

I 서 론

WTO체제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계 대학 및 전문대학이 30여개가 있고,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의 졸업생 대다수가 농업이외의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새롭게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의 설립은 학계,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의 입학자원을 교육하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적극적인 설립추진을 주장하였고 산업대학이나 농과대학의 일부에서는 소극적 내지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지난 '95년 7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어 학교시설 및 직제를 마련하고 '97학년도 첫번째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였던 점은 과연 입학할 학생이 얼마나 되고 학교 설립목적에 적합한 입학생을 제대로 선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이었다. 그러나 입학 경쟁율이 4:1이나 되었고 입학생을 선발한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할만한 점들이 많았다. 예컨대 승계받을 영농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95%, 농업계 고등학교출신 학생 30%, 영농종사동 1년이상 사회경험이 있는 학생 51%였고, 전국 170여개 시군에서 1명이상의 입학생이 선발된 시군이 134개시군등 이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타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입학한 학생이 20여명이나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입학생이 어느 정도나 농업에 종사하여 전문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기왕에 설립한 학교라면 그 출발이 좋아야 하고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학교의 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미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문제 해결방안 및 발전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배경 및 설립과정, 학교의 조직 및 시설, 입학생에 대한 지원 및 특전, 교육과정 등의 현황을 이 학교의 설립목적과 연계시켜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 배경과 설립과정

1. 설립배경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배경은 첫째로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화 내지는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농업인구의 감소 현상이 일어났으나 오랜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감소한 나라는 큰 문제로 대두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중반이후

부터 농업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90년말 부터 '95년말 까지 182만명이 감소함으로써 최근 5년간에도 연평균 36만명 이상씩 급속한 감소현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95년말 현재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10.8%인 484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비중은 여러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소하는 농업인구의 대부분이 젊고, 학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인구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술농업, 수출농업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주 중에서 50% 이상의 고령층이 '95년말 현재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자가 84%를 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는 불과 1.8%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와같이 우리 농업의 경영인력 인간자본의 경쟁력이 열세한 실정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있는 산업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력 육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농업계 학교 교육의 각급 학교간 불균형과 졸업생의 농업이외의 분야로의 진출 등의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농업계 고등학교는 순수농고 20여개, 비순수농고 60여개등 80여개의 학교가 있고, 농과계 대학은 33개교가 있는 반면에 농업계 전문대학은 순수농전 1개교, 비순수농전 13개교등 14개교로 학교 계층간의 구조가 병목현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을 논의하기 전부터 농업계 학교의 졸업생중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의 비중이 농업계 고등학교에서는 7%, 농업계 전문대학에서는 17%, 농업계 대학에서는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적·사회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농업계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전문 농업 경영인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전문대학을 시범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기존의 농업계 고등교육기관의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 및 개혁하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제의 설립배경은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 분야에서 장기적인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전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농업인구의 경우 경지면적의 규모화로 나아가는 식량작물 분야의 경영인구(또는 농가호수)감소가 전체 농업인구의 감소를 주도 할 것이고, 그 밖에 1~2ha 수준에서도 시설 및 기술 집약화로 경쟁력 향상이 용이한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분야와 축산분야의 경영인구는 '9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특용작물 경영인구 5만명, 채소 경영인구 20만명, 과수 경영인구 10만명, 화훼 경영인구 1만명, 축산 경영인구 10만명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림부, 1995). 이러한 전망하에서 쌀 전업경영인구 10만명과 기타 작목분야의 전업경영인구 50만명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 농업인구의 연간 수요는 1만명 내지 2만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농업경영인이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다음 후계자에게 자신의 농업을 이양하고 은퇴할 때 까지를 30~40년으로 절고 계산된 연간수요 인력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는 연간 1만명 수준의 농업인 후계자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농업관련산업 인구, 즉 농산물 유통·

판매 및 가공, 농기계 생산수리, 종자·종묘 및 농자재등 생산, 농업연구·농촌지도 및 농업협동조합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의 종사인구는 지난 '93년도 133만명에서 2004년 170만명으로 연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1995). 이러한 농업관련산업 인구의 유지 및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연간 신규인력 수요는 농업인구의 연간 신규인력 수요보다 훨씬 많은 5~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같은 농업인구 및 농업관련산업 인구의 연간수요 6~8만명에 비하여 현재의 농업계 각급학교의 연간 인력배출(또는 졸업생)은 2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졸업생의 100%가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 분야에 진출한다고 해도 수요의 25~30% 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 농업계 각급학교의 졸업생이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기존의 농업계학교 교육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젊고, 능력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설립과정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 방안을 학계에서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4년 3월 한국농업교육학교가 "영농후계자 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된 학교 설치방안은 우수농고에 ①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병설하는 방안 ② 우수 농고를 5년제 기술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 ③ 우수 농고를 2년제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하는 방안 ④ 농업기술 전문대학을 신설하는 방안등이 었다. 그리고 이어서 '94년 4월 농촌문제연구소와 농어민후계자연합회(현재의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공동으로 "2000년대의

정예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농업인 및 관련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미나 및 공청회 장소에는 대통령의 한시적인 자문기구로 설치한 농어촌 발전대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농업계 원로를 비롯하여 대통령 비서실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논의되는 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농어촌 발전대책 위원회」에서는 '94년 5월 정부에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수산계 기술전문대학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농수산 수석의 주재하에 관계부처 협의회를 자주 갖고 농림수산계 교육개혁방안을 논의 하면서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기술 전문대학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적인 정부의 기본 방안은 농어촌 발전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내용을 농어촌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농정개혁 추진 회의」에서 검토 수용하므로써 '94년 6월 14일 확정되었고, 정부의 세부실천 계획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94년 9월에 확정 되었다. 이때 확정된 정부의 세부실천 계획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산하에 각각 기술전문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학교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고, 농업기술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현 축산기술연구소)에 6개학과 입학정원 240명의 규모로 설치하여 '96년에 개교하고 나머지 학교는 '97년에 개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입학자격은 고교를 졸업한 영농어 정착 희망자로서 농(어)촌 지도소장 또는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 실습비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졸업생에 대하여는 농어민후계자로 선정하고 병역특례 인정등 영농어 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학교설치에 관한 규정, 즉 「한국농업전문학교 설치령(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를 거

쳐 '94년 11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95년 4월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 결과 학교설립 찬성의견 40건, 설립 반대의견 6건이 접수 되었는데, 찬성의견은 대부분 농업인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고, 반대의견은 일부 농과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 대학의 교수 또는 교수협의회 명의로 제출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5년 7월 27일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14742호)」이 제정공포된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학교 설치령을 근거로 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직원 조직과 정원이 '96년 2월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확정됨으로써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제도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 신축 역시 제정된 학교 설치령을 근거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9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므로써 당초 세부 실천계획서상의 '96년 개교 계획을 '97년으로 연기 할 수밖에 없었고, '97년 개교를 위한 교직원 확보, 학칙 제정, 교육과정 편성, 입학생 선발, 학교시설 신축 등의 제반준비를 농촌진흥청의 농민훈련시설에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는 '97년 3월 20일 학교신축 시설 준공겸 개교식과 입학식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 공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농업전문학교는 1년 정도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치고, 1년정도의 법령 제정과정, 그리고 1년정도의 개교준비과정을 경과하므로써 논의하기 시작한지 3년만에 출범을 하였던 것이다.

III. 한국농업전문학교의 현황

1. 제도적인 학교의 위상과 특성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교육부가 관장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는 농촌진흥청 소속의

학교이다. 그러나 교육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 산하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와 같이 학교의 장이 갖도록 이 학교의 설치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① 학교의 조직과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직제」에서 정한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학교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학교의 부교수 이상은 교장의 제청으로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조교는 교장이 임용한다 등이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전문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다. 즉 이학교의 설치령으로 ① 입학자격은 고졸이상의 자로서 출신학교장, 시장·군수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한국농업전문대학이라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긴다. 그것은 교육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이 학교를 설립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학교의 조기 출범을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 학교의 설치령을 설치법으로 전환한다거나, 교육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학교 명칭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학교는 입학생 및 졸업생에게 여러 가지 특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첫째로 입학생에게는 졸업후 수업연한의 2배기간동안 농업에 종사할 조건으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 및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고, 둘째로 졸업생에게는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으로 편입과 영농정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설치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이 학교는 농업인 또는 농업종사자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특별 연수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 학교 설치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등과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농업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조직과 시설 현황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59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장 및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가 22명, 조교 3명 교무·학생·사무 등 행정요원 12명, 기타 기능직이 22명이다. 현재는 1학년 학생 240명만 있기 때문에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1명 정도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 2·3학년생까지 교육하게 될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3명으로 증가되어 전국 전문대학의 교수 1인당 평균학생수 40여명보다 약간 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농업연구 및 지도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기가 용이하고, 영농경험이 풍부하고 실용기술 수준이 우수한 선진농가의 경영주를 수시로 초빙하여 성공사례 발표 및 특강을 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학교장이 주재하는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폭 넓게 협의하고 자문과 심의를 받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교수회의보다 상위의 협의체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점도 이 학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학교장, 농림부 농업정책실장, 농촌진흥청 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업계 및 학계 원로 8명정도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

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1년에 2회정도 정기회의를 개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조직은 교장 밑에 교수부, 교학과 및 서 무과를 두고 있고, 교수부장 밑에 각 학과를 두고 있다. 교수부는 일반전문대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성인들에 대한 특별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경우 연수부라는 하부조직을 더 두어서 특별 연수교육으로 인한 정규교육의 소홀함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주요시설은 본관 및 교육관, 대강 당, 기숙사, 후생관, 체육관, 영농실습시설(유 리온실·팜삽·버섯재배사·종합실습실)로 총 6,800여평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가운데 체육관과 영농실습시설의 신축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준공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전산실습실, 어학실 습실 및 각종 실험실습실이 교육관동에 포함되어 있고, 도서관이 본관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설집중은 시설관리 요원의 최소화, 냉·난방 등의 경비절감, 학생 및 교수진의 이동 시간 단축등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간이 풍부한 캠퍼스로는 미흡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학교의 실습 포 장은 3,000여평으로 학과당 500~6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학교가 농촌진흥청 축산 기술연구소의 초지 일부를 부지로 활용하여 설치하였고, 인근의 시험장·연구소 시험포 장을 수시로 견학 및 실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자체의 실습포장을 최소화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각종시설 내부에 있는 교육장비는 매우 다양하고 현대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의실의 50% 이상의 VTR, 슬라이드 등을 통한 시청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실험실,

전산 및 어학실습실에도 성능이 매우 좋은 장 비로 갖추어져 있으며,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도 대형 멀티비존 및 방송장비들이 잘 갖추어 져 있는 편이다.

3. 입학생 선발 방법과 입학생 현황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학과별 보다는 약간 넓은 계열별로 인원을 정하여 이 루어 졌다. 먼저, 선발 방법을 요약하면 첫째로,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전형항목에서 제외 하고 출신고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영농승계기 반, 면접 및 기초 소양고사를 전형항목으로 설 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40%, 영농기반 30%, 면접 및 기초 소양고사 30%를 반영 하였으며 둘째로, 농업계 학교 출신자, 병역을 필한자 영 농경력자, 4H회원 경력자, 전문대졸 이상의 학 력소지자에게는 일정 수준까지 가산점을 부여 하였고, 셋째로, 시군별 안배를 위하여 군에서 는 최고 5명 까지, 시에서는 2명 까지만 선발 하는 시군별 선발인원의 상한제를 실시 하였 다. 넷째로, 학교자체의 소양고사에서 일정한 점수이상을 얻지 못하면 불합격시키는 파낙제 를 실시 하였으며, 다섯째로 영농 승계기반이 없더라도 다른 전형항목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실시 하였고, 끝으로 면접을 입학지원 학생과 학부모 를 동반하게 하여 실시하고, 추천권자의 소견 서 및 자기 소개서를 면접성적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심사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영농승계 기반을 전형하여 계열별 입 학 정원의 70%를 선발하고, 2차 면접 및 소양 고사를 실시하여 1차 성적과 2차성적(가산점 포함)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방법과 절차는 고등학교 의 학업성적 보다는 농업에 대한 적성, 영농 정 착의지, 영농정착 가능성이 우수하면서 이 학 교에서의 전문교육 과정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기 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로 선발된 입학생의 학과 및 축종별 인원은 <표 1>과 같았다.

<표 1> 계열별 모집 및 학과별 입학생

계 열	모집인원	학과별 입학생
작물계열	80명	식량작물 32명 특용작물 48명
원예계열	120명	채 소 34명 과 수 36명 화 책 50명
축산계열	40명	한 육 우 19명 낙 농 9명 영 돈 9명 양 계 3명
합 계	240명	

그리고 주요 특성별 입학생은 영농승계 기반이 있는자 228명(95%), 농업계학교 출신자 79명(33%), 1년이상 영농종사 및 취업경험자 123명(51%) 병역을 필한자 61명(25%), 전문대졸 이상자 20명(8.3%), 여학생 11명(4.6%) 등이었다. 또한 출신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 등급별로 5등급이상 161명, 6등급에서 8등급 자가 44명, 9등급 이하는 35명 이었다.

4.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교육과정의 특성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95년 5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대학교수진에게 교육 과정개발 용역연구를 의뢰 하였는데, 용역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교육과정을 ① 교과 ② 코스교육 ③ 현장실습으로 구성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코스교육이란 특정기술을 2~3주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학점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교과를 가급적 다양하게 편성하여 학

생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용역 연구결과에 대하여 '95년말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관계공무원과 시험장·연구소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용역 연구결과가 좋았다는 것이고 일부 학과의 경우는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다. 예컨대 채소과의 경우 3학년 때에 과채, 근채, 엽채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고, 과수과의 경우에도 선택과목으로 분류 편성한 인과, 핵과, 장과를 필수과목으로 전환하자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96년 초에는 영농인 교육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외국의 교포교수, 지역의 선도농업인 등을 상대로 수 차례의 자문을 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농업철학 등 교양교과, 전산, 외국어등 교육도 강조되어야 하고, 선진 지견학 교육을 자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검토의견 및 자문결과는 '96년 7월부터 학교의 교수진에 의해서 종합정리되기 시작하였고, '96년 9월 학교의 학칙이 정하여진 직후 발족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심의 하였으나 이 때에도 교육과정 편성 기본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교과 선정 및 학점 배분등은 교수진이 충원된 후 교수회의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97년 초에 학교의 교수회의에서 최종 심의하여 <표 2>에서와 같은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특성은 1학년의 학과별 통합교과와 공통 및 분야별 농기계 2학년 현장실습, 3학년의 작목별 전문교과와 창업세미나 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학과별 통합교과는 1학년 1·2학기에 각 학과의 전공 작목에 대한 다분야적(생리, 사양, 작물보호, 경영, 가공등)인 실용적인 이론과 기술을 다수의 교수진이 생육 또는 사육단계별로

강의, 실험, 실습 등을 신축성 있게 실시하는 교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각 학과의 전공 관련 여러 교과를 통합하여 1주당 14시간을 학과별로 교육하고 학기당 7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학과의 교수 뿐만 아니라 작목과 관계되는 선도 농업인, 시험장·연구소의

연구진이 수시로 출강하여 강의, 실험, 실습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작목이 재배 및 사육되는 현장, 즉 시험장·연구소와 학교 자체의 실습 시설 및 포장에서 계절성과 기상조건들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창안된 교과인 것이다.

<표 2>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과정

구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교과명	학점			교과명	학점			교과명	학점			
		1	2	계		1	2	계		1	2	계	
교양	필수	농업철학 I·II	1	1	2				농업총론	1		1	
		국민경제	1		1				농업법규 및 법률상식	2		2	
농촌사회·지도		1		1				지도력 배양		1	1		
생활예체능 I·II		1	1	2				농정시책		2	2		
교양특강		1	1	2				농업영어	1	(1)	1		
환경농업				2				농업일어	(1)	1	1		
농업조직 (정신위탁교육)				1				농촌생활과학	2	2	4		
선택	농업영어	1	(1)	1									
	농업일어	(1)	1	1									
농기계분야	필수	공통농기계	2		2				영농시설·장비	1		1	
		원동기	1		1				농기계·시설운영		1	1	
		분야별농기계		1	1								
농업공작			1	1									
경영·가공	필수	농업전산정보 I·II	2	2	4				유통판매	2		2	
		농업경영	2		2				축산물질관리	2		2	
		*							특작채소가공	2		2	
		수확후처리 I·II	1	1	2				영농설계		2	2	
		농업부기		2	2				창업세미나		2	2	
							식작과수가공		2	2			
전공	필수	학과별통합교과 I·II	7	7	14	현장 실습	15	15	30	작목별전문교과 I·II	5	5	10
		식작 I·II								수도, 전작, 특작, 버섯, 과채, 엽근채, 인과, 장핵과, 절화, 분초화, 대가축, 증소가축	5	5	10
		작 I·II											
		버섯 I·II											
	채소 I·II	2	2	4									
	과수 I·II												
	화훼 I·II												
	대가축 I·II	2	(2)	2					조사료생산이용 특소가축 I·II	2	2	4	
	증소가축 I·II	(2)	(2)	2					산업곤충, 조직 배양, 공정육묘				
계		23	23	46		15	15	30		25	25	50	

그리고 공통 및 분야별 농기계는 다른 교과
의 수업을 받지 않고 공통 농기계는 2주간, 분
야별 농기계는 1주간 집중적인 코스교육을 실
시하는 교과이다. 이는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
기술의 숙련도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높이
기 위한 교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학년 현장실습은 1년간을 국내외의 선
진농장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산 및
경영을 선진 농장 경영주의 지도하에 체험하도
록 하는 교과로서 독일 등 선진국의 마이스타
농장 실습제도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학년의 작목별 전문교과는 1학년의 학과별
통합교과와 유사하나 수업을 받는 학급이 학과
별 보다는 소규모인 작목별로 편성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는 교과이다. 예컨대 과수과의 경
우 3학년때의 전공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으로 수업받는 학급을 구분하고, 학급별로 주
당 10시간 수업에, 학기당 5학점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세미나는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전업 경영주로
정착할 때까지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
여 학생 자신이 발표하게 하고, 학과 이외의 교
수들은 물론 학부모까지 와서 듣고, 지적하거
나 조언을 해 주는 교과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
계획은 영농 정착자금의 신청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IV.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발전과제

1. 학교의 명칭 개선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국립의
경우 법(특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사립의 경
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교의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학사,
1996)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설립 운
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명칭을 개선하려면 그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

떠한 명칭이 학교설립 목적 및 학교위상에 부
합되는 것이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농업
계의 각급학교 명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
로 농업 보다는 “농업생명” 또는 “농업생명과
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
산가공이나 농기계 분야의 학과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다. 이는 생물학적 유전공학의 이미지를 덧
붙임으로써 새롭고 특수한 분야를 선호하는 청
소년 층에게 입학지원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농업전문학교
는 학문보다는 실용적인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 농장을
경영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농업생명”이나 “농업생명과학”과 같은 명칭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명칭보
다는 “농업경영”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서 앞
으로 이 학교의 명칭을 “한국농업경영전문대
학”, “한국전문농업경영대학” 등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학교 자체 실습포장 확대

한국농업전문학교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학교 자체 실습 포장은 3,000평 정
도이고 부족되는 포장은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
장·연구소의 포장을 활용하여 견학 위주의 실
습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은 ① 학과당 실습포장의 면적이
500~600평으로 협소하여 해당학과의 전공품
목 및 재배 작형별로 다양한 실습이 곤란하고
② 시험장·연구소의 포장활용시 학생의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③ 연구목적의 포장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실습이 현장 견학 위주로
이루어 지고 ④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
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한 학생 스스로의 실습
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
은 면적을 실습포장으로 사용할 경우 교육 목
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실습포장 관리 목적

의 단순노동 작업을 많이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포장을 무조건 넓게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과별로 교육대상 작목 및 품목에 대한 재배시기별 주요 농작업의 탐구실습을 하루 3~4시간 정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학교 자체 실습포장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학교조직의 개선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분리하지 않고 교학과로 통합하여 교무·학생 행정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1학년 학생만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가능할지 모르나 앞으로 1, 2, 3학년 학생이 재학하면 교학과의 사무요원 5~6명 만으로는 교무 학생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교무행정과 학생행정은 그 주된 행정 지원대상이 교수와 학생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교학과를 그대로 두고 행정사무요원만을 증원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조기에 교학과를 교무과와 학생과로 분리하여 교무 행정업무와 학생 행정업무를 각각 관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에는 6개 학과와 교양공통과를 두고 있는데, 각 학과의 교수가 2~3명인 반면, 교양공통과의 교수가 5~6명이다. 교양공통과 교수는 6개 학과의 교양 공통과목을 전공별로 강의하지만 지도 대상 학생이 없으므로 농기계, 농업경영, 농산가공과 같은 공통교과 담당교수는 각 학과에 소속되어 타학과 학생강의도 하면서 소속학과의 학생지도를 전공과목 담당교수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양공통과를 교양과로 축소 개편하고 공통교과 담당교수를 관련성과 교육 요구도가 높은 학과에 소속토록 해서 학과의 전공교수와 함께 학생상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장기 현장실습 농장 선정 및 운영

한국농업전문학교는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국내의 선진농장 등에서 실습하고 3학년 때에 다시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기 현장실습의 목적은 ① 1학년때에 학교에서 배운 기본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선진농장 경영주의 계획적인 지도하에 전업규모의 영농에 직접 종사 하도록 함으로써 선진농장의 생산 및 경영기술을 선별적으로 배우고 나아가서 선진농장 경영주의 성공 및 실패의 경험과 강인한 생활철학의 산 지식을 배우도록 하고 ② 선진 농장실습의 경험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학교에 돌아와서 발표하고, 3학년 전문교과를 이수토록 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실질적인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의 장기 현장 실습이 바람직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정규 농업 교육기관에서 1년간을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과거 농촌청소년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4-H독농가 농장훈련, 미국 선진 농장에 파견실습을 실시한 KATP(Korea and America Training Program) 훈련이 실시된 바 있으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얼마간 실시하다 중단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학교의 선진농장 장기 현장 실습은 의학교육에서의 인턴과정과 같이 도제교육(apprenticeship education)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제교육의 성패는 이를 담당할 선진 농장의 경영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선진농장의 선정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아직까지는 실습생을 받아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선진 농장이 없는 만큼, 일단은 지역농업실정을 잘 아는 농촌지도소나, 농업인 단체에 장기 현장실습의 목적과 취지를 잘 설

명하여 적합한 농장 추천을 의뢰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이 실습농장에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협력 활동을 어느정도 평가하여 농장 경영주가 보상을 할 것인가와, 농장 경영주가 학생을 지도한 활동을 어느정도 평가하여 학교가 보상을 할 것인가에서 농장경영주·학생·학교간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과 지원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농장 실습하는 동안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므로 적합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진 농장에서 실시되는 실습이라고 해서 학생에 대한 실습과 평가를 전적으로 선진농장에만 맡기고 의존한다면 선진농장에 따라 실습의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작목별 또는 품목별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습진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선진농장이 이를 최대한 같은 수준으로 준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WTO 체제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선진 외국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직접 보고 발전수준을 피부로 느껴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연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도 면밀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연수 목적을 ① 선진외국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데 들 것인가, ② 선진외국의 전문 농업인의 생산 및 경영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들

것인가 ③ 아니면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를 미리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연수라면 가능한 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study tour가 좋을 것이고, 생산 및 경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 연수라면 학생 각자가 졸업후에 경영하고자 하는 품목을 경쟁력있게 경영하고 있는 나라의 선진농장에서 상당기간 체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사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체류시킬 농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협약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졸업생은 졸업후 수업연한의 2배기간인 6년간을 영농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학중에 지원받은 모든 경비를 국고에 상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하여 병역 특례 및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 모든 졸업생이 곧바로 전문농업 경영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졸업생이 가능한 조기에 영농정착에 성공하여 후배 학생의 장기현장 실습을 담당케 하는 것이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와 사후관리를 잘 해주어야 모든 졸업생이 보다 효율적으로 영농정착에 성공하고 나아가서 모교의 발전에 자발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에 대한 통신지도, 전산망을 통한 경영진단, 작목별·지역별 졸업생 연합회 개최, 교수진의 현지 방문지도등 추수지도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졸업생의 영농정착 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재학생에 대한 정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졸업생 추수지도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출범한지 불과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운영 현황을 재점검하고 현재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은 쏟아진 물을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수행한 교육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또한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면 계속해서 잘못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에 검토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2, 3학년의 학생이 다 채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① 학교자체 실습포장이 부족하다는 점 ② 학교의 교무·학생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이 업무의 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 ③ 교수부의 하부조직이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실습포장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확대해야 하고, 교과과목을 교무과 학생과로 분리 및 사무요원을 증원하고, 교수부의 교양 공통과를 교양과로 축소하고 공통교과 담당교수를 6개학과에 적절히 분산 배치하는 점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2학년 학생대상 장기 현장실습, 해외연수 및 졸업생 추수

지도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① 현장실습농장경영주와 학생간의 갈등 우려 및 실습농장간의 실습효과 격차 ② 해외 연수의 과도한 비용에 비하여 교육적인 성과 저조 우려 ③ 졸업생 추수지도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졸업생 추수지도를 소홀히 하거나 재학생 정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현장실습농장 경영주와 학생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단 확보 ② 해외연수 구체적인 목적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③ 졸업생 추수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발전과제로 제시하였다.

VI. 참고 문헌

1. 교학사편, 1996. 교육법전.
2. 윤호섭 외. 1992. 농업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 훈련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수산부, 1994.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4. 농정연구포럼, 1995. 농어촌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5. 농촌진흥청, 1995.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운영 추진 자료집.
6. _____, 1995.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준비 자료집 .
7. _____, 1995. 외국의 농민교육훈련사업.
8. 이무근 외. 1989. 전문대학 현장실습 지침서 개발연구, 전문대학 현장실습 지침서, 개발연구 위원회.
9. 한국농업전문학교, 1997. 학교 요람.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정책토론회자료" 농림수산계교육 개혁방향(안).
11. 日本農林水産省, 1986. 農業者大學校 記録.